

## 어떤 재난 위기에도 흔들림 없도록, 2026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75개 기관 참여, 풍수해·지진·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재난유형 훈련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총 75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풍수해, 지진,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 다양한 재난 유형을 가정해 실시한다. 특히 최근 2년간(’24~’25년) 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각 기관에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극한 재난상황 대응력 강화 ▲재난관리자원 동원 ▲주민 참여 및 실질적 역할 부여 ▲훈련⇔매뉴얼⇔실제대응 간 연계 강화를 중점 점검한다.

주요 기관별 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담양군 등 33개 시·군·구는 풍수해로 인한 하천 범람, 건물 붕괴, 침수 등을 가정해 초동대응과 주민 대피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한국중부발전은 지반침하로 인한 열공급배관 파손, 가스 누출과 같은 극한 상황을 설정하고,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휘책임자의 역할과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한다.

서울 성동구는 종합병원 대형 화재 상황을, 충북도와 충주시는 사업장 화재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에서 광역과 기초정부 간 합동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각 기관의 훈련 기획 단계부터 위험 요소 발굴 등 사전 자문을 실시했으며, 훈련 전 과정을 평가 지표에 따라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 재난대응 체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한다”라며,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훈련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은 신속히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자연재난실<br>재난대응훈련과 | 책임자 | 과 장 | 임충현 (044-205-5291) |
|       |                  | 담당자 | 서기관 | 하손숙 (044-205-5294) |



**< 풍수해 >**

## ○ 전남 담양군(5.11.)

- (유형) 풍수해(집중호우), 건축물 붕괴
- (장소) 토론군청 영상회의실, 현장담양종합체육관
- (참여) 소방경찰군부대, KT, 전력공사, 의용소방대 등
- (중점) 초동대응 및 통합연계훈련 체계 내실화, 재난  
관리자원 실질적 가동, 주민참여 및 역할부여

※ 광주 동구, 수원시, 포천시, 횡성군, 옥천군, 영동군, 천안시, 공주시 등 48개 기관

**< 지진 >**

## ○ 인천항만공사(5.21.)

- (유형) 지진, 화재
- (장소) 토론본사 비상상황실, 현장인천항 갑문 타워
- (참여) 인천 중구, 보건소소방경찰군부대, KT, 전력공사,  
민간기업(도시가스병원), 안전관리자문단 등
- (중점) 상황전파, 건물내 고립자 구조, 화재진압, 자원봉사,  
국가핵심기반 항만운영 연속성 확보

※ 화성시, 안양시, 고창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의정부경량전철 등 6개 기관

**< 국가핵심기반 마비 >**

## ○ 한국중부발전(5.14.)

- (유형) 풍수해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 열공급배관 파손 등
- (장소) 토론인천시청 IDC센터, 현장인천발전본부
- (참여) 인천시, 서구, 민간기업(적십자사·병원 등),  
민간단체, 12개 유관기관 등
- (중점) 극한상황 설정, 핵심기능 회복, 환류체계 강화,  
재난리더십, 실제사례 반영, 주민대피훈련 등

※ 인천시, 인천 서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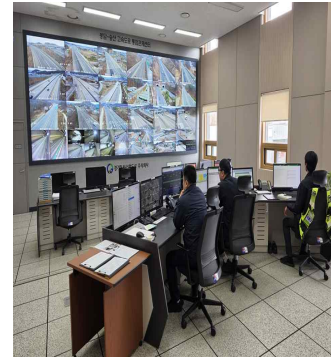


## < 도로재난 >

### ○ 경기동서순환도로(5.14.)

- (유형) 집중호우, 다중 추돌로 인한 전기차 화재 등
- (장소) 토론본사 교통정보상황실, 현장 마도IC 출구
- (참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화성시, 협력업체, 보건소·소방·경찰·군부대, 협력업체, 자율방재단 등
- (중점) 극한상황, 임무카드 작성, PS-LTE 활용, 협업 등

※ 경기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 등 3개 기관



## < 소방대상물화재 >

### ○ 서울 성동구(5.19.)

- (유형) 의료기관 대형화재
- (장소) 토론성동구청, 현장 한양대학교 병원
- (참여) 성동구, 성동보건소, 한양대병원, 소방·경찰·군, 적십자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중점) 실질적 주민대피훈련, 재난관리자원 가동 등

※ 부산 남구, 순창군 등 3개 기관



## < 전기 >

### ○ 한국전력공사(5.21.)

- (유형) 비행물체 폭격에 의한 전력설비 파손
- (장소) 토론본사·경기북부상황실, 현장 미금변전소
-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남양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보건소·소방·경찰·군부대, 민간단체 등
- (중점) 접경지역 특수성 반영, 민관협력 거버넌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동성 진단 등



## < 철도재난 >

### ○ 부산교통공사(5.22.)

- (유형) 산불확산에 따른 철도사고
  - (장소) 토론본사 상황실, 현장호포차량기지
  - (참여) 양산시, 소방·경찰·군, 양산부산대병원, 신라대 도시철도 안전지킴이 등 민간단체
  - (중점) 유관기관과의 초기대응 점검 및 탈선 복구훈련
- ※ 경남 양산시, 부산김해경전철 등 3개 기관



## < 화학사고 >

### ○ 충북 충주시(5.13.)

- (유형) 사업장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 (장소) 토론충주시청 재난상황실, 현장(주)코스모스신소재
  - (참여) 충청북도, 충주화학방재센터, 119화학구조센터, 화학물질안전원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 (중점) 훈련 중 다양한 돌발상황 대응능력 검증, 광역 합동훈련, 주민보호 의사결정 및 대피훈련 등
- ※ 충청북도, 보은군 등 3개 기관



## < 환경오염 >

### ○ 한국수자원공사(5.21.)

- (유형) 소방헬기 추락·파손에 따른 유류유출로 수질오염
- (장소) 토론본사 상황실, 현장밀양댐
- (참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경남도청, 밀양시, 양산시, 민간기업, 소방·경찰·군부대 등
- (중점) 연쇄적·동시 다발적 발생 재난상황 시나리오, 불확실성 요소 문제해결, "Physical AI" 도입

